

내 인생의 새로운 다짐

정신지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준익
(주)신형전자 대표이사

중년이 되어가기 3년 전 쯤, 남은 여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정신지체 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재활 타운을 설립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보호를 위주로 하는 기본 복지들과는 달리 아이들이 스스로 일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꿈동산을 만들고 싶다.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을 위한 꿈

또 한해가 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3월이다. 신년이 되면 의례껏 한, 두가지쯤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필히 이루어 보겠노라 다짐하며 희망차게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대부분의 목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 또는 결실을 스스로 성취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등반의 목표가 정상정복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내나 인부 역할을 하는 포터나 세르파이기 보다는 정상에 깃발을 꽂는 등반가 이길 원할 것이다.

2, 30대에 세웠던 여러 목표들은 항상 내가 주도적이 되어 그 결과를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불혹의 나이를 지나면 서도 그 사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작년 한해는 나의 이런 사고에 전환을 가져다 준 소중한 해였다.

중년이 시작되던 3년 전, 남은 여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대학에서 배운 사회복지, 청소년과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 등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지체 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재활 타운을 설립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1년 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작년 3월 임가공회사를 설립하고 전혀 생소한 분야인 경영을 시작했다.

에초의 구상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잡고 보호를 위주로 하는 기존 복지들과는 달리 아이들이 스스로 일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결혼도 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꿈동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림처럼 만만치가 않은 것이었다.

정신지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생산품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두터운 편견, 아이들의 산만함과 작업성 저하, 경영마인드에 길들여 지지않은 사회복지적 사고 등, 사업은 난관에 난관을 거듭했고 무수한 밤을 고심으로 지냈다.

그러나 직업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이 원론적 구상은 누군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에 시작한 이상 내 입으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였다.

힘든 여건 속에서 희망 키우기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처음 이 계획을 세울 때 5년이나 10년 후 반듯한 공장과 넓은 운동장, 기숙사, 평온한 휴게실, 아이들의 가정집이 어우러져 있는 그 동산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품은 뜻이 바르고 하늘의 소명에 따라 사심없이 구상한 목표였기에 그 결실을 보고 성취감을 향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우매하고 큰 욕심이란 것을 깨달았다.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 난 당연히 정상에 깃발을 꽂는 등산가로만 생각했지 세르파나 포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신지체 아이들을 위한 공익적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성취감 내지 사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목표설정의 근본적인 개념이 잘못 된 것이었다. 목표의 관점을 바꾸기로 했다. 이 일은 힘들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시작은 내가 하였으나 그 결실을 내가 꼭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하자. 여기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면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이건 그 일에 충실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중압감과 번민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라도 결실 맺기를 소망

인간사를 돌아보면 그 뜻이 선하다고 그 결과도 항상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뜻을 세우고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뜻이라면 결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뜻을 세운 이래 나름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내 스스로 이 목표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을 거듭한다.

결실을 향유할 주체는 정신지체장애 아이들이기에 내가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받아 언젠가는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 열심을 다할 따름이다.

현재 우리 회사에는 30명의 아이들이 각기 재능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중도 탈락 없이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대견스럽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벌은 일을 시키고 않고 세워 두는 것이다. 더 큰 벌은 집에 보낸다고 험박(?)하는 것이고... 비록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집단이나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 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일 게다.

지금도 가정에서 고립되어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밝은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서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작은 터전이 좀더 넓어지기를 바라며, 구상했던 "꿈의 동산"이 언젠가 누구에 의해서든 꼭 조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